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ERFORMANCE

가제 : 연극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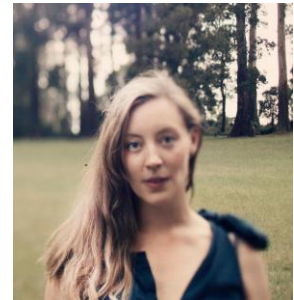
저자 : Claire Thomas

출판사: W&N

발행일: 2021년 1월 1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말 그대로 불타는 한 여름 밤, 서늘한 극장에 앉아 같은 연극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과 고민에 빠진 세 여성들의 이야기**

호주 멜버른, 어느 더운 여름 밤. 한 언덕에서 불길의 무섭게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한 극장에서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행복한 날들'을 보고 있었던 마고, 아이비, 썸머, 이 세 명의 여자들은 각각 불안과 사랑, 사람들의 진실과 가식에 대한 생각에 빠져 들게 된다.

마고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꽤 성공한 문학과 교수였다. 아직은 산불의 기세가 미약했던 그날 늦은 오후, 마고는 허겁지겁 아무 표나 손에 들고 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최대한 그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극장 좌석에 앉았다. 마고는 사실 지금 자기가 어떤 연극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저녁 일곱 시인데도 40도에 달하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한 날씨에, 도시의 극심한 교통체증까지 더해지자 열광한 사람들도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땀뻘 땀이 나오는 에어컨이 나오는 극장 안은 산 등성이마다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마치 비현실적인 세계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고는 옆에 앉은 청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보러 온 연극이 베케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막이 올랐고 무대 위에는 한 여성 배우가 올라왔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마고는 계속해서 목이 간질간질 했고 아무리 기침을 삼키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기침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은 꽤 신경질이 난 듯했다. 마고가 느끼기엔 나이트 여자에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오늘날해도 그녀는 평소 자신을 강압적으로 대하던 한 대학 관계자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온 터였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처럼 서툰 운전 실력을 가진 노인 여성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유난히 세심한 기억력은 가진 마고는 공기 중에 흩어진 분자처럼 늘

떠다니고 있는 이 같은 일상의 폭력성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한편, 이제 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는 아이비 역시 오랜 친구 힐러리와 함께 이 연극을 보러 왔다. 아이비는 갑자기 부유층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 중이었다. 이 연극 티켓 역시 아이비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길 내심 바라고 있는 극장 측에서 제공한 공짜 티켓이었고 최근에는 한 갤러리에서 짬 해뒀던 조각상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아이비는 자신이 점점 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충분히 어떤 물건이든 마음껏 살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게 될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공연 시작 전 아이비는 힐러리에게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힐러리는 이 모든 행운은 그저 아이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괴팍한 할머니와 단둘이 고아로 자랐던 가난한 옛 시절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은 아이비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낯선 친절들이었다. 막이 오르자, 이 희곡의 주인공 캐릭터인 위니가 등장했다 위니는 말이 정말 많은 한 중년 여성으로 한 시도가만있지 않고 쉴 새없이 별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고 있었다. 아이비는 도저히 그녀의 대사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VIP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졸면서 코를 고는 바람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 소음에 견디다 못한 아이비는 은근슬쩍 팔꿈치로 그 남자를 찔러보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굳히 잠들어 있었고 옆에 있는 그의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그 시각 같은 연극을 보고 있던 썸머는 극장 안내원으로 일하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공연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썸머는 연극을 보다 말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은근한 긴장감과 묘한 불편함을 금세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산불에 대해서만큼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썸머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연극을 보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님 정말 오로지 연극에 몰입해서 이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마침 무대 위의 주인공 위니는 지금의 행복을 누려야 할지 아니면 이 행복 끝에 찾아올 또 다른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우울해해야 하는 것인지 망설이고 있었고 썸머는 계속해서 산불과 죽어가는 지구의 미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극과 함께한 이 강렬한 밤이 지나고 다시 각자의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된 이 여성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대 여성들이 대표하는 여성성과 모성의 복잡성, 죽어가는 자연에 대한 공포, 예술의 가치,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늘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중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토마스 (Claire Thomas)는 호주 작가로 호주 잡지에 여러 단편 소설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데뷔작 『Fugitive Blue』로 도비 리터러리 어워드 (Dobbie Literary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SAVING MEGHAN

가제 : 메건, 널 위해서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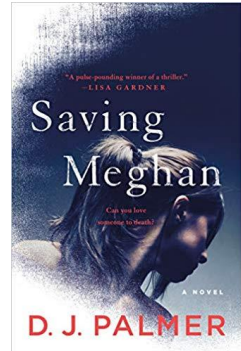
저자 : D. J. Palm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4월 9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딸의 병명을 알아내기 위한 엄마의 끈질긴 사투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 눈엔 베키 제라드는 이 세상 물도 없는 헌신적인 엄마였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칼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베키가 자신의 딸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키가 그토록 딸 메건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메건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 그녀의 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보스턴에 살고 있는 베키는 고향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다. 친정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위급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륙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베키는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라고 말하는 기내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승무원들의 눈을 피하느라 바빴다. 그건 당장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딸 메건 때문이었다. 베키는 실시간으로 메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겨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는 행위는 베키가 밖에 있을 때 메건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끊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금도 몸 아래로 자신의 핸드폰을 숨긴 채 어서 남편 칼의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마흔 여덟 살인 베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딜 가든 원래 나이보다 열 살 정도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메건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베키의 아름답던 금발머리에는 회색줄이 생겼고 그윽하게 빛나던 눈빛 또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베키는 긴장감 때문에 점점 배가 아파왔고 엄마를 보러 가는 것이 과연 잘 한 짓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열다섯 살 청소년기에 접어든 메건의 상태는 언제든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었고 그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 피로, 눈 앞이 흐려질 정도로 극심한 두통, 관절 통증, 체중 감량, 신체 활동 약화 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베키는 메건의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 지난 수년간 수 없이 많은 병원들을 들락날락하며 수 많은 의사 및 전문가들을 만나보았다. 하지만 그 중 그 누구도 메건의 병을 정확히 진단 내리지 못했다.

비행기 이륙 직전, 베키는 드디어 도착한 남편의 답장을 확인하고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메시지의 내용은 메건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베키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애써 베키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걱정과 불안에 사로 잡힌 그녀는 승무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좌석에서 일어났고 사람들을 해집고 기내 통로로 나가 딸이 입원한 병원에 가야 하니 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곧 다른 승무원들까지 베키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강제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베키는 끝내 저항을 굽히지 않았고 기내 여기 저기에서는 그녀를 편드는 사람들과 그녀의 무모한 행동을 욕하는 사람들의 고성어 터져나왔다. 그리고 곧 기내 보안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결국 이 일로 비행기는 이륙을 멈췄고 베키는 보안 요원의 지시에 따라 기내를 빠져나와 공항 어딘가에 있는 취조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공항 보안 책임자 덕분에 베키는 그곳에서 곧 풀려나게 되었다.

사실 베키가 이렇게 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지 딸의 병명을 모른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메건은 그녀가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갖게 된 둘째 아이였다. 첫 아들이었던 새미는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렇게 첫 아이를 허무하게 잃은 베키는 혹여 메건까지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남편 칼은 아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만 생각하며 메건의 상태에 대해 꽤 무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칼은 베키가 비행기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 문득 의사인 자신의 한 친구가 메건의 증상을 듣더니 미토콘드리아 장애일 수도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베키에게 전했다. 이에 베키는 곧바로, 미토콘드리아 장애로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피셔 박사에게 메건을 데려갔다. 하지만 수년간 반복된 검사로 메건은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버렸고 이는 적합한 검사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한편 메건 역시 자신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하는 의사들을 만나느라 지친 상태였다. 이와중에 다른 의사들은 메건이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원하우젠 증후군 (주로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서 자신에게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 내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그건 아빠인 칼도 마찬가지였다. 칼은 메건이 다시 예전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씩씩한 소녀로 돌아오길 바랐고 아픈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피셔 박사와 함께 치료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희망을 가지게 된 메건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메건의 증상이 이전보다 급격히 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없던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 후 베키는 자신의 삶을 위협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대체 메건이 앓고 있는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 베키의 잘못으로 메건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일까, 아니면 몇몇 의사들의 추측처럼 메건은 그저 모두의 관심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독한 모성과 그 비밀에 대한 기묘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D.J. 팔머 (D.J. Palmer)는 『Delirious』, 『Desperate』를 포함한 여러 작품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은 스릴러 전문 작가이다.

제목 : IN THE SHADOW OF THE STORM

가제 :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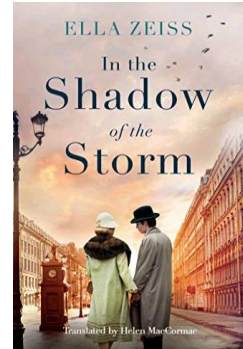
저자 : Ella Zeis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분량 : 347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2018년 킨들 스토리 텔러 (Kindle Storyteller) 수상작

★ 역사의 광풍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 남았던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

제 2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자 솔츠 가족과 파이퍼 가족, 이 두 가족은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가야만 했다. 그들은 과연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노환으로 지친 몸을 겨우 추스른 이보는 자신의 곁에 모인 손주들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이보는 창 밖으로 보이는 남편 하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는 비록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의 활기는 잃은 지 오래였지만 그들이 처음 만난 70년 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이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어린 손주들이 이보의 보석함을 몰래 구경하다가 발견한 커다란 펜던트가 달린 은 목걸이를 가지고 그녀에게로 왔다. 그 목걸이를 본 이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1930년, 독일 군이 점령하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국의 크림반도. 이보의 엄마 아나 솔츠는 갑자기 들이닥친 엄청난 차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 펄쩍 뛰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아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빵 반죽을 내려 두고 앞치마에 재빨리 손을 닦은 뒤 창가를 향해 달려갔다. 아나는 곧 트럭 한 대를 발견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소련 인민 위원회’ 사람들을 보았다. 아나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신신당부한 후 다시 창문을 통해 그 트럭이 프리드리히 신부의 집 앞에 멈춰선 것을 예의 주시하며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 집에서 거친 고함소리들이 들려왔고 아나는 프리드리히 신부와 그의 딸 리타가 위험해 처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아나는 에리히에게 동생 이보와 함께 집에 숨어있을 것을 당부한 후 집 밖으로 몰래 나왔다. 그들은 신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를 소비에트 연방에 반대하는 프로파간다를 주창하고 다닌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신부가 계속 저항하자 그 건장한 사내들은 신부의 복부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분의 마을 남자들은 한창 밭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고 그나마 집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마저 다치게 될까 봐 어딘가에 꾹꾹 숨어있었다.

이 비극은 모두 1918년 있었던 10월 혁명 때문이었다. 이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본격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양도하지 않는 농민들은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체포했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프리드리히 신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는 소비에트연합 정부에 맞서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나에게 그는 일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베르타의 소중한 남편이기도 했다.

위원회 사람들은 신부의 만류에도 억지로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신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아나는 그제서야 왜 그가 그토록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집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딘가에 자신의 딸 리타를 숨겨 두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내들은 아직 여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리타까지 강제로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리타는 울며불며 아빠에게 매달리려고 했고 사내들은 그 둘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리타는 러시아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고 아빠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이 실랑이는 마침내 총성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공포에 질려 있던 아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리타에게로 달려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고 이 날부터 리타를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즈음,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나의 남편 빌헬름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나와 빌헬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두고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이 마을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 경고는 자신들과 같은 러시아계 독일 사람들에게는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역시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계 독일인인 사무엘의 아내 힐데가 아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인 아나와 빌헬름, 이 솔츠 부부에게 자기들은 내일 밤 몰래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고백했다. 남편이 독일인인 이상 그 역시 하루 아침에 프리드리히 신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파이퍼 가족이 무사히 마을을 떠난 후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고 솔츠 부부 역시 마을을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츠 가족이 도주를 감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한발 늦은 때였다. 인민위원회에 붙잡힌 솔츠 가족은 끔찍 얼어붙은 북쪽의 한 포로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고 살아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만 마련되어 있는 좁고 추운 곳에서 나무를 베며 살게 되었다. 한편 마을을 떠난 파이퍼 부부 또한 언제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두 가족은 이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다. 그들은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까? 실제 있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불운한 시대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라 자이스 (Ella Zeiss)는 열 살 무렵 조부모님과 함께 고향 카자흐스탄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다. 그녀는 현재까지 24권에 달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쟁 전후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조부모님들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

제목 : THE DOORS OF EDEN

가제 : 에덴으로 가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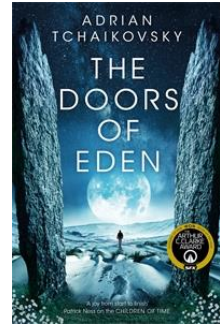
저자 : Adrian Tchaikovsky

출판사: Tor

발행일: 2020년 5월 28일

분량 : 608 페이지

장르 : SF 소설



*** 새로운 에덴에서 깨어난 괴물들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둘러싼 기묘한 사건들과 비밀에 관한 이야기.**

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리는 가장 친한 친구인 말 (Mal)과 함께 기이한 생명체들을 찾아 다니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하지만 모험 중 말은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말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신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후, 30 억 년이 흘렀지만 신의 눈에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찰나에 불과했다. 그동안 지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장류로 거듭나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포 분열 이상으로 지구 곳곳에는 다시 생명의 정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최초의 에덴 동산과는 달리 인류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은 땅이었다. 이 정원에는 새로운 카스트제도가 생겨났고 팔, 다리와 근육이 없는 마치 이불처럼 생긴 박테리아들이 떠다니면서 입 없이도 음식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눈, 이빨, 장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생명체들은 곧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외계 생명체 집단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세상은 약 6억년 전 지구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세계는 결코 인간의 세계는 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리와 말, 둘은 열세 살 때 처음 만난 이후로 꼭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다. 리는 파키스탄 이민 가정 출신이었고 말은 영국 상류층 계급 출신 백인 소녀였지만 둘의 우정에 있어 그런 각자의 상이한 배경은 그 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두 소녀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길 바랐고 그 중 그 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한 일은 바로 괴물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매우 소박했다. 두 친구는 그저 아서 클라크가 진행했던 미스터리 시리즈물들을 보면서 미지의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고 그날 이후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함께 휴가를 보내며 괴물들을 쫓아다녔다. 하지만 당시 리는 그 탐험에 대해 그리 진지하지도 않았고 괴물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진짜 괴물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리는 미확인 생물들에 대한 연구 기사를 잡지에 기고하게 되면서 '괴물'을 그저 인간 내면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문학적 메타포로 취급하는 전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와 말이 발견한 괴물은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 괴물들은 끔찍한 발톱들과 야만적인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 괴물들은 두 소녀에게 기이한 상실감을 가져다주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공포였다.

당시 리와 말은 열아홉 살이었다. 리는 리딩이라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말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각자 여름 학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두 친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맞아 탐험을 떠나기로 했고 다음 행선지를 찾기 위해 유튜브 영상들을 구경하던 중 우연히 ‘보드민의 버드맨’이라는 영상을 발견했다. 그 영상은 콘월 지역 바로 밑에 위치한 ‘보드민 무어’라는 지역의 한 양 농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인듯 했다. 영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농가에 자꾸만 센서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이 보였고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왔다갔다하더니 갑자기 새의 모습을 한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 생명체는 사람보다는 작고 새보다는 큰 몸집과 구부러진 가시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은 마치 뱀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말과 리 모두 단 한번도 본적 없는 아주 기이한 모습이었다. 리와 말은 당연히 그 영상이 조작된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지 이번에는 묘한 이끌림을 느꼈고 당장 보드민 무어라는 곳으로 탐험을 떠났다. 두 친구는 곧 바로 그 영상 속 양 농가를 찾아냈고 주변에 있는 수상한 발자국들까지 발견했다. 그러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울타리 주변을 따라 걸어갔던 말은 그 곳에서 일곱 마리 정도의 양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겁에 질린 리와 말은 서둘러 그 곳을 빠져나왔고 리는 갑자기 화창한 여름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눈이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 후, 말의 비명소리를 들은 리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말의 몸을 찢어버리기라도 할 것 같은 강한 바람이 말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세 개의 평평한 돌들은 갑자기 여섯 개의 돌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중 한 돌에 갑자기 새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때, 말은 조용히 리를 부르느니 하늘을 보라고 말했다. 하늘에는 영상 속에서 보았던 버드맨들이 있었다.

이 기이한 일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은 이 탐험지에서 갑자기 실종되고 말았다. 그리고 4년 후, 그녀는 다시 리의 앞에 나타났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 물리학자로 일하고 있던 칸 박사가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MI5의 요원인 줄리안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인간이 아닌 어떤 막강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지구상에 생겨난 새로운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보드민 무어에서 죽은 한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된다. 리는 4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돌아온 것일까? 줄리안은 그 미지의 존재의 정체와 의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 기묘한 상상력이 가득한 오싹한 모험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아드리안 차이코프스키(Adrian Tchaikovsky)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동물학,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브리티시 판타지 어워드 수상작 『Tiger and the Wolf』과 아서 클라크 어워드에서 베스트 SF 소설상을 수상작 『Children of Time』의 저자이다.

NON-FICTION

제목 : SLOW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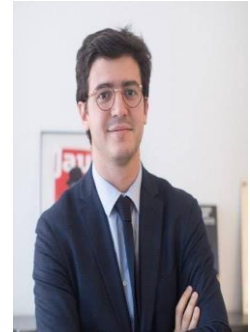
가제 : 느린 민주주의

저자 : David Djaiz

출판사: Allary Editions

분량 : 313 페이지

장르 : 사회



*** 쇠약해진 민주주의를 노리고 득세 중인 극우주의에 맞서는 방법 또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책**

영국의 브렉시트와 보리스 존슨, 미국의 트럼프, 헝가리의 극우 성향을 가진 총리 빅토르 오르반, 이탈리아의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이들의 등장은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시대가 민주적인 영웅이 아닌 사람들의 울분을 자극하고 강한 남성적 권력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의 정치 질서가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재개편 되고 있는 상황이며 영원히 굳건할 것처럼 보였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 책의 저자 다비드 제즈는 이 원인이 바로 무자비한 세계화라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세계의 통합을 외치던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많은 국가들의 주권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극적인 프로파간다로 민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다름 아닌 바로 국가 그 자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국가는 민족주의자들이나 반 유럽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극우적인 개념에 근거를 둔 국가가 아니다. 저가 말하는 국가란 우리가 잃어버린 정치, 사회, 영토적 연합체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개방적이며 생태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체제이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한다. 이미 전세계의 극우집단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유권자들까지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세계화 발전의 초기, 잠시나마 밝아 보였던 미래는 한날 꿈에 불과 했고 현재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국가들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88부터 2016 년 사이에 발생한 전세계 소득 증가의 44 %는 지구상 인구 중 가장 잘 사는 상위 5%의 몫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구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대도시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잠재된 위기들을 무시해온 결과 이미 비공영화

된 지역은 점점 더 황폐화되어갔고 유럽의 바이에른, 카탈로니아, 런던 같은 부유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다른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푸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지역 이기주의는 마침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의 사람들은 포퓰리스트들의 호소력 있는 주장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서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느린 민주주의만이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사회민주주의자, 생태주의자, 진보론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앞세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포퓰리스트, 극우주의자들과 맞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당선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같은 문제적인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브렉시트가 곧 실행되는 이 세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해결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선언문이다.

<목차>

머리말

제 1 부: 비민주적 자유주의 질서 (1979 년부터 현재까지)

제 1 장. 자동 인계

- 1 막: 첫 번째 균열: 무제한 민주주의의 위기 (1968-1979)
- 2 막: 1979-1989 : 신자유 주의적 공세와 새로운 세계 질서 연합
- 3 막: 1986-2008 : 초 세계화와 국제적 통치의 신기루
- 4 막: 2000-2010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동 조종사”

제 2 장: 세계화와 민주주의: 이혼

제 3 장. 국가-포퓰리스트 백래쉬

제 4 장 민주주의 국가, 세계화의 관문

- 각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던 순간
 - 유럽의 위기
 - 공격적이지만 국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유럽
- (총 3 부, 10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다비드 제즈 (David Djaïz)는 프랑스의 고위 공무원이자 유명 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공학자인 야스차 몽크와 정치 분석가 제로메 푸켓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제목 : WHAT IS LOVE?
가제 : 사랑이란 무엇일까?
저자 : Anna Machin
발행일: 2020년 하반기
분량 : 약 300 페이지
장르 : 과학, 인문



★ 과학과 인류학, 사회학을 통해 알아보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책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한 사적인 경험들과 의미가 녹아있다. 우리는 사람이나 반려 동물 혹은 축구팀까지 정말로 다양한 대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사랑은 내가 직접 그 감정이나 기분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어렵듯하게나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랑이란 너무나 사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사랑은 사회적인 의식과 법을 통해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옥스퍼드대학 진화 인류학 교수인 애나 머친은 사랑은 또한 인간의 행동과 창의성의 원천인 동시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속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아주 섬세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이며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도가 담긴 사고를 형성하고 이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 자체가 복잡한 만큼 사랑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사랑은 폭력이나 속임수와 같은 지극히 이기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반면 자기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감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시인, 화가, 철학자들이 이토록 강력하고도 모호한 사랑이라는 감정과 독특한 인간 현상에 대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계에서도 역시 사랑이라는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사랑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과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1950년대 존 보울비의 애착 연구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로버트 슈텐베르크와 아서 아론의 심리학 저서들부터 시작해 신경과학자 헬렌 피셔의 획기적인 최근 연구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망을 결정하는 신경화학과 유전자에 관한 복잡성을 밝히기 시작한 오늘날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현대 과학이 정의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배타적인 애정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 종종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우정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폴리아모리적 관계, 연예인을 향한 팬심, 종교적이거나 성스러운 사랑, 심지어는 로봇이나 스마트폰을 향한 사랑처럼 흔하지 않은 형태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간의 사랑은 동물의 사랑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인간 본성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해 과학적,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서문

제 1 장 : 생존

제 2 장 : 중독

제 3 장 : 애착

제 4 장 : 인간

제 5 장 : 개인적인

제 6 장 : 공적인

제 7 장 : 독점적 관계

제 8 장 : 짝사랑?

제 9 장 : 통제

제 10 장 : 동기 부여

에필로그

<저자 소개>

애나 매친(Anna Machin) 박사는 진화 인류 학자입니다. 매친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친밀한 인간 관계와 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바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사랑'이다. 지난 연구들을 통해 그녀는 이미 사랑의 과학과 인류학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제목 : THE POWER OF DISABILITY

가제 : 장애가 가진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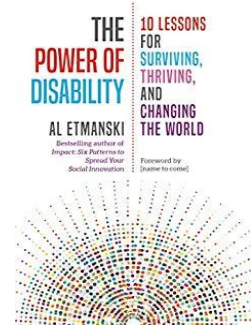
저자 : Al Etmsanski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에트만스키는 풍부한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일반 독자들이 장애인들의 세계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장애인들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던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장애인들은 그저 기회가 필요한, 평범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 장애인 협회 의장, 캐롤 글레이저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아마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장애인 인구는 지구상 인구의 약 7분의 1에 해당한다. 그들은 소수 집단 중에서도 가장 큰 소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곱 명 중 세 사람 정도가 장애인인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공로를 빼앗기거나 무시되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장애인 인물들은 베토벤, 헬렌 켈러, 스티븐 호킹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온 활동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알 에트만스키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으며 또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그들이 가진 창의력과 새로운 도전에 맞선 투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했으며 천상의 음악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들이 쓴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을 웃기고 울리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그 중 어떤 이는 작은 휠체어에 앉아 저 광대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기도 했다. 저자는 알려진 몇몇 유명 인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20개국 출신의 100인의 장애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10가지 주제와 관련된 교훈을 소개한다. 이 인물들 중에는 한국인 장애인 댄서 이정수씨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16세의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파킨슨 병으로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배우 마이클 J. 폭스, 자폐증을 가진 동물학자 탬플 그랜딘, 청력장애를 가진 에블린 글렌니, 유색인종이자 트랜스우먼 장애인인 모델 아론 필립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결코 이 이야기들은 장애인들의 삶과 경험을 신화화하고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지,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

는지 그들의 인간적 면모를 밝히는 책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무한한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지금 바로 이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목차 소개>

머리말

용어에 관한 말들

서문

장애가 가진 이점

제1강.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아요.

몸의 정치, 캐서린 프레이지

너무나 멋진 불완전함, 엘리 클레어

신이 주신 선물, 주디스 스노우

불완전함에 대한 간략한 역사, 스티븐 호킹 박사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아요, 샤펠 쌍둥이

숨겨진 전체, 파커 팔머

'인류'라는 여권, 나오키 히가시다/ 데이비드 미첼

경계가 없는 문화, 캐리/셀리/ 조 엘브럼

(이하 생략, 총 10강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알 에트만스키 (Al Etmanski)는 사회적 기업가이자 작가이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출생한 이후부터 꾸준히 장애인 커뮤니티의 활동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의 장애인 시설 및 학교들을 폐쇄하는 운동을 이끈바 있으며 캐나다 최초 장애인 가족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1989년 그는 아내와 함께 Planned Lifetime Advocacy Network (PLAN)를 공동 설립했다. 이 단체를 그는 세계 최초의 장애인 저축 계획을 이끌어냈다

제목 : CANCER AND THE NEW BIOLOGY OF WATER

가제 : 암을 이기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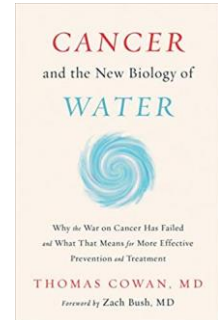
저자 : Thomas Cowan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0월 2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코완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암 문제와 관련된 의학적 철학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안적인, 비독성적인 암치료 전략들을 소개한다." - 보스턴 대학 교수이자 『Cancer as a Metabolic Disease』의 저자, 토마스 사이프리트

1971 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암 연구에 투자하고 암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미국립 암 법 (National Cancer Act)에 서명했을 당시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곧 암을 퇴치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철석 같이 믿었다. 연구 기관 측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인 '종양 유전자'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자축하느라 바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그 유전자들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암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질병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고 암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난 것이 분명해졌다. 새로운 형태의 암이 계속 해서 출현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 중 세 명 중 한 명꼴로 살면서 한 번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암 질환에 있어 종양 유전자에 대한 연구 방법은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전히 암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 이 세가지 방식을 기본적인 암 치료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코완 박사는 이러한 실패는 사실상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종양 유전자 이론 자체가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다 DNA 가 우리의 세포 기능과 건강을 통제한다는 가설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완 박사는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체세포 돌연변이는 종양 유전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포 악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근본 원인이 대사 기능 장애로 인해 세포질과 세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구조화된 체내의 '물'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사는 물이 가진 생물학적 힘과 암 발병, 암 치료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코완 박사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의약품들이 암을 치료하기 보다는 고통만 남기는 이 상황에서 의사가 표준 치료 외에 다른 방식의 처방을 내리는 것을 불법화하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기존의 치료 대신 더 효과적이고 유망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지적한다. 박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안적 치료법에 관한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유기체 내에서 작용하는 물의 역할과 암의 발병 요인 치료, 대안적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다.

<목차 소개>

머리말

서문

제 1 부: 암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장. 종양 유전자 이론의 실패

2 장. 암의 위치

3 장. 삶이란 무엇인가?

제 2 부: 대안가능성이 있는 요법들

4 장. 퀸톤 이소토닉 플라즈마 (Quinton Isotonic Plasma)

5 장. 거슨 테라피 (Gerson Therapy)

6장. 카디악 글리코시즈(Cardiac Glycosides)

7장. 식물, 버섯, 약

(이하 생략, 총 3부,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토마스 코완 (Thomas Cowan) 박사는 영양학, 동종 요법, 인지학적 의학 및 약초를 포함한 여러 의학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Vaccines』, 『Autoimmunity』, 『the Changing Nature of Childhood Illness』 and, 『Human Heart』 등이 있다.

제목 : PERIOD QUEEN

가제 : 월경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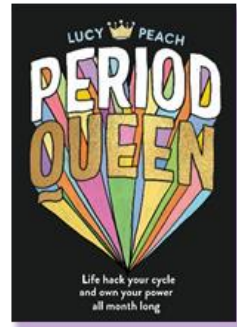
저자 : Lucy Peach

출판사: Murdoch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9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페미니즘



*** 불편하고 찝찝하게만 느껴졌던 생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리 주기와 자신의 몸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

이 세상 여자들에게 월경이란 과연 매달 일어나는 재앙일까, 축복일까?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뻔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생리를 더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생리 기간 동안 동반되는 감정적인 변화들과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생리란 언제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심지어 여자들 스스로조차 생리라는 중요한 신체적 현상을 괘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여자들의 삶을 때론 최악으로 몰고 가기까지 하는 이 생리를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성교육 강사이자 생물학 교사인 저자 루시 피치는 우리가 생리 주기만 잘 활용한다면 생리를 네 가지의 슈퍼 파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종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기분 변화와 신체적 불편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여기서 월경이 여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를 존중하고 월경이 가진 이점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여성들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 역시 생리와 관련된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규칙한 생리 주기와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생리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오랫동안 금기 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단 한번도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것이다. 그저 엄마가 하는 것을 배우고 따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언니, 또래 친구들을 통해 생리에 관한 나름의 지식을 쌓아왔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소녀들이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는 이유가 단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신성한 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그에 따른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소녀들은 소녀들이 성적 쾌락과 만족감에 대해서 배워가는 동안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과 임신에 대한 공포, 생리가 상징하는 고통에 대해서만 스스로 더 각인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월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그 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생리 기간 동안 혈액 공급에 필요한 여러 식단, 의약 제품 섭취 방법들과 월경 주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정신적 현상에 대해 소개하면서 여성의 성과 생리, 자궁 (포궁)은 오직 자손 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일단 우리가 생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리를 통해 자신의 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생리 기간 및 배란기, PMS 증후군 시기 또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이다.

<목차>

제1장: 소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

제2장: 여성들의 과학에서 일어나는 충돌

제3장: 우리가 가진 수퍼 파워에 관한 소개

제4장: 꿈

제5장: 실편

제6장: 주기

제7장: 취하기

제8장: 이제 당신의 차례

부모들에게

더 많은 것이 알고 싶다면 읽어보면 좋을 글들

<저자 소개>

루시 피치 (Lucy Peach)는 생물학 교사이자 성교육 강사, 가수 및 연설가, 공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호주와 영국에서 14세 이상 관객들을 대상으로 성과 생리에 대한 쇼를 진행하고 있다.

제목 : THE SOBER LUSH

가제 : 술 없이도 신나게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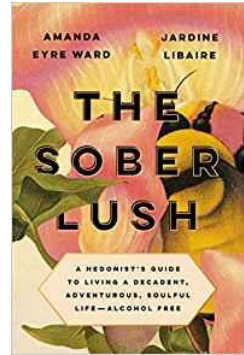
저자 : Amanda Eyre Ward, Jardine Libaire

출판사: Tarcherperigee

발행일: 2020년 6월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술 없이도 충분히 퇴폐적이고 거침없이, 누구보다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

온종일 붉은 로제 와인에 취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고 믿는 이 사회에서 '술 한 잔 하기'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쉬운 방법이자 인맥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설레는 첫 데이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달달한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술을 마시는 행위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기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일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자르딘 리베르와 아만다 에어 워드도 역시 한때는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 더 즉흥적이고 럭셔리한 삶을 살기 위해 술에 취해 사는 삶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부턴가 술 기운에 젖어 사느라 정작 현실의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만다와 자르딘, 이 두 사람이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을 즈음 아만다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두 저자는 첫 만남 이후, 급속히 친해졌고 마침내 친구가 된 그들은 그 동안 서로가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내심 갈망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은 기분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 두 저자의 결심처럼 우리가 한 달 혹은 평생 동안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리고 만약 그 결단 후에도 여전히 위험과 혼돈을 갈망하고 은밀한 쾌락의 통로를 찾아 헤매게 된다면? 술에 취해서만 할 수 있는 수 많은 미친 짓들과 사랑고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sober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어둡고, 조용하며, 내적인, 유머가 없는'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두 저자가 말하는 'sober'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태, 혹은 다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두 저자는 술 없이도 마음껏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아무 어색함 없이 사람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먼저 인생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인지 재정의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

또한 알콜이 없는 삶에서도 더욱 풍요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난초 가꾸기, 아이스크림 먹기, 등산, 롤러 스케이트 타기, 섹스, 커피 마시기 등등 다양한 여가 활동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로 들려준다. 또한 이 책에는 맨 정신으로 일찍 파티 장소를 떠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주는 낭만, 사계절에 맞춰 무알콜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 또렷한 정신으로도 환상적인 데이트를 하는 방법 등도 소개 되어있다. 새해를 맞아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거나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술에 빠지지 않고도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귀중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소개>

서문

1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분노의 터키석: 자르딘의 이야기

옥 귀걸이: 아만다의 이야기

2부: 신성한 범죄

북극곰-백조의 다이빙

폭주족 소녀들

토스트의 기술

파멸을 수용하는 것

밤 하늘 소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격노한 청록색: Jardine 's Story비소형화란 핑크 록이다.

어른들의 눈 오는 날 (눈은 필요 하지 않은)

제단 혹은 메멘토 모리 만들기

가장 무도회

(이하 생략, 총 15부로 구성)

<저자 소개>

아만다 에어 워드 (Amanda Eyre Ward)는 여섯 권의 소설을 집필한 작가이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및 여러 여성 잡지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한 그녀의 여러 소설들은 곧 영화 및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자르딘 리베르 (Jardine Libaire)는 아마존 베스트 북, 반스 앤 노블스에서 흥미로운 책이라고 선정한 바 있는 소설 『White Fur』과 『Here Kitty Kitty』의 저자이며 여성 잡지, TV, 영화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